

엽기아이들의 반란

컴온베이비



몇 년 전 오락실에 등장한 아케이드용 게임 <컴온베이비>는 누구나 쉽고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다소 엽기적인 게임이었다. 열심히 버튼을 두들기다보면 손바닥이 이플 정도였지만 재미만큼은 확실했던 <컴온베이비>가 온라인으로 돌아왔다. 비록 연타의 감동은 느낄 수 없지만 엽기 코믹 레이싱 장르를 표방,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자하는 컴온베이비의 세계로 빠져보자.

글 정동진 게임어바웃 기자

영 악한 아이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컴온베이비에는 두기·모모카·카프레오·잠비·돈부리·팡팡 등 총 6개의 슈퍼베이비가 등장한다. 각각 능력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게임을 하면서 장비 구입 시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한다. 방어력을 중시하는 유저라면 캐릭터를 선택할 때 방어력이 높은 슈퍼베이비를 선택하고, 장비 역시 방어력을 올려줄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이템전에서 포춘쿠키라는 것이 등장한다. 6개로 구성된 포춘쿠키를 슈퍼베이비가 먹게 되면 각각의 특성에 따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게임홈페이지에서 직접 포춘쿠키를 보고 플레이하는 것이 좋다.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는 자신과 맞는 포춘쿠키를 먹었을 때 효율적인 경기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전 혹은 팀전에서 승리를 위해 실드나 폭탄, 부스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는 유저라면 자신만의 포춘쿠키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필자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필요치 않은 쿠키를 먹고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 역전패를 당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컴온베이비에서는 레이싱게임 외에도 뽀뽀리기라는 미니게임을 할 수 있다. 미니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메달인데, 메달은 레이싱 트랙에서 등장한다. 물론 사전에 장애물의 위치와 메달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뽀뽀리기를 하기 위한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뽀뽀리기는 온라인 버전의 컴온베이비를 처음 즐기는 유저들에게 활력소가 되며, 기존 아케이드용 컴온베이비를 알고 있는 유저들이라면 영악한 아이들의 쇼를 다시 한번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뽀뽀리기는 연습모드 외에서는 오직 승자만이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내기와 같이 판돈이 없을 때는 레이싱게임을 통해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레이싱 장르에 메달이라는 요소를 도입, 컴온베이비를 하면서 레이싱과 아케이드 요소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점이 이 게임의 장점이다. 하나의 콘텐츠가 부족하면 게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유저들은 계속해서 컴온베이비를 하게 되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레이싱 게임의 역사를 새로 쓴다!

일단 컴온베이비는 레이싱 장르에서 실제 레이싱과 비슷한 시뮬레이션 레이싱 장르가 아닌 아케이드 레이싱을 추구한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온라인 레이싱게임들에 비해 진보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레이싱게임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엽기와 코믹이라는 요소를 도입했다.

게임에서 엽기라는 요소는 특히 아이템전에서 두드러진다. 일반적인 레이싱게임이라고 한다면, 순간 가속과 절묘한 코너링 기술로 승부를 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하지만 컴온베이비는 앞서 말한 기술보다



- 1 자~모두 치즈~
- 2 승리의 기쁨을 느껴보자~
- 3 이 귀여운 모습을 보라~
- 4 아싸~ 1등이다^^



파리채의 공격타이밍이 중요하다. 게임도중에 자신의 달리미(컴온베이비의 차량)근처로 상대편이 접근하면 파리채로 공격할 수 있다. 파리채 공격은 스피드전과 아이템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매 경기 변수가 된다. 아이템전에서 공격아이템과 파리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1위 독주는 물론 팀의 승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파리채를 남발할 경우 공격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므로, 기회를 노려 공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코믹이라는 요소는 게임에서 뽀빠리키 모드에 잘 녹아있다. 엉덩이를 두들기며 도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귀엽다기 보다 웃기다. 뽀를 맞아서 쓰러지면 누워있는 모습조차 웃게 만든다. 코믹요소를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은 개발사의 숨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레이싱에서 느꼈던 긴장과 스릴을 뽀빠리키를 통해 해소시켜주고, 지루해질 때면 다시 레이싱게임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은 눈여겨 볼 만하다.

아케이드 버전의 컴온베이비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꾸면서 엽기 코믹이라는 요소를 살린 점은 좋은 시도라 생각된다. 온라인 레이싱게임 장르로 등장하면서 카트라이더와의 비교대상에서 머물지 않고 점차 컴온베이비만의 매력을 찾고 있는 듯 하다.

다양한 코스튬과 성장하는 달리미

일반적인 온라인게임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나 캐릭터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전부였다. 특히 MMORPG에서 지존이나 고수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캐릭터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다. 2005년부터 캐주얼게임이 강세를 보이면서,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방법은 다양한 코스튬 의상을 통해 가능했다. 컴온베이비에서도 다양한 코스튬 의상을 지원한다. 심지어 달리미에도 다양한 코스튬의 상이 존재한다. 물론 장비튜닝이라는 요소가 있지만 코뿔소나 병아리를 위한 꽃신 아이템을 보면 말이 달라진다.

어떤 옷을 입혀도 귀엽고 깜찍한 아기들이지만, 패션감각이 있다면 정말 엽기적(?) 의상을 입힐 수 있다. 다양한 코스튬 의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유저들은 자신만의 아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상구입비를 마련하고 있다. 단지 상의와 하의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귀걸이·헤어스타일·모자·바지·양말·바지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옷을 입힐 수 있다. 또한 컴온베이비에는 기본적인 달리미인 보행기, 가속력이 뛰어나 스피드전에서 유용한 보드, 튜닝에 따라 성능이 좌우되는 카트, 성장할수록 강해지는 펫 등 존재한다.

특히 동물달리미의 경우 레이싱에 RPG요소를 결합했다. 처음 구입



- 5 이정도면 멧쟁이 아닌가?
- 6 그리고 사기위해 정말 열심히 벌었다 ㅠㅠ
- 7 그녀(?)가 쓰러졌다 이런^^;
- 8 여자를 절대로 이기지 말자!



했을 때 속도감도 느끼지 못하고, 조작이 어려워서 후회할 수도 있지만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장하므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성장할수록 튜닝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달리미의 레벨업이 아닌 나만의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요소는 유저들의 다양한 개성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레이싱게임에 레이싱이 없다?

어떤 게임도 100% 완벽한 게임은 없는 법. 이는 컴온베이비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컴온베이비가 표방하는 장르가 레이싱이지만, 레이싱의 요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레이싱게임에서 내가 힘차게 달린다는 느낌은 속도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컴온베이비의 속도감은 완벽하지 못하다. 부스터를 사용할 때 느끼는 속도감은 단지 조금 빨라진 느낌 뿐 달린다는 느낌은 없다. 오히려 엽기코믹이라는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레이싱의 기본요소인 속도감을 잘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쉽다.

게다가 트랙 역시 레이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 위주로 이뤄져 있다. 여러 가지 배경 오브젝트가 존재하지만, 직선트랙보다 장애물 트랙이 더욱 많다.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직선트랙도 등장하지만, 대부분 유저들은 장애물이 많은 트랙에서 게임을 하게 된다. 직선트랙은 아기자기한 재미가 없고, 오히려 장애물이 많은 트랙에서 역전

승부가 많이 연출되기 때문인데 스피드전과 아이템전을 위한 맵을 더욱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외에도 컴온베이비는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한 콘(컴온베이비의 게임 내 사이버머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아쉽다. 이는 유저들에게 콘앵벌이라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콘을 모으기 위해 수동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MMORPG에서는 캐릭터를 육성하면서 장비 교체주기를 조정하여, 유저들에게 자연스럽게 게임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컴온베이비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게임이라는 점을 감안,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한 부분유료화 실시나 콘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의 가격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온라인 레이싱게임이 등장하는 가운데, 엽기코믹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등장한 컴온베이비. 필자는 최근에 플레이 해본 게임 중에서 오랜만에 웃으면서 게임을 했다. 유쾌·상쾌·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던 컴온베이비는 추운 겨울에 가족이 웅기중기 모여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된다. 오락실에서 신나게 버튼을 눌렀던 컴온베이비의 재미를 온라인에서도 느껴보고 싶다면 지금 접속해 보자! ☺